

환경교육
The Environmental Education
2004. 17권 1호 pp.133-143

중등학교 환경교과 선택현황에 기초한 환경교육 확산방안¹⁾

엄은희 · 이수종* · 강유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서중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The Spreading Strategy of Environmental Education Based on the
Status of Selecting Rate of Environment Subject in Secondary School

Eun-Hui Eom · Su-Jong Lee* · You-Jeong Kang**

(Graduate School, SNU, *Yeonsoo Middle School, **Graduate School, SNU)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ways in spreading and maturing of environmental Education(EE) in secondary school. To deal with this issue, researchers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EE and grope for the ways in spreading and maturing of EE. According to investigation, the selecting rate of environment subject in secondary school is about 3%(compared selecting rate of other subject matters) in 2003.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s. First, sequencing strategy of EE curriculum will be expected very efficaciously. Secondly, there is need to empasize daily experiences of EE beyond the formal subject matter. Thirdly and ultimately, thers is need to reform school curriculum centered EE. Moreover, there is need to empasize teacher education for the environment not only pre service but also in-service teacher training.

Key words : spreading and maturing of EE, the selecting rate of environment subject, sequencing strategy of EE curriculum, ee for teacher

* 2004. 6. 2 접수

1) 본 연구는 환경부에서 발주하고, 환경정의연구소와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에서 수행한 「학교환경교육의 확산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2003) 최종보고서 중 3, 4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본 연구의 수행기관인 환경정의연구소와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이하, 환생교)은 01~02년에 걸쳐 중·고등학교 환경교과서의 내용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2003년 환경부 용역과제인 「학교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오늘날 환경교육의 확산과 그에 따른 자연친화적 실천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환경교육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행정적 방법과는 달리 의식 일반 및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서 근본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나라 공교육 내에서 환경교육의 위상은 사회의 일반적 강조와는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현실에서 환경교육은 선택과목이라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행위자(agent) 양성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학교 환경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고 양적인 확산과 질적인 내실화를 동시에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환경과목의 양적 확산과 질적 발전은 언뜻 모순된 언명일 수 있다. 과학적·기술적 입장에서 서술된 현재의 환경과 교육과정은 분명히 극복의 대상이므로 사회적·윤리적 가치지향²⁾과 현실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선택과목이란 한계로 인하여 전체 학생 중 일부만이 환경교육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는 조건 하에서 학교 환경교육의 질적 발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환경교육의 양적 확산

을 위한 현실적 조건 탐색과 방안 제시를 먼저 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환경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과 제한점

환경부의 용역과제는 선택과목 중 하나인 환경과목의 확산 그리고 이와 결부된 환경교육 전공자들의 임용확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현실의 교육이 그리고 현실의 환경교육이 이미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명한 반성을 요구하는 연구진의 입장에서 위의 요구에 답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일 수 없다. 하지만 질적 발전을 위한 최소 요구치의 양적 확산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진은 학교 환경교육 특히, 중·고등학교 환경과목의 현재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되 근본을 바라보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상당수가 중·고등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논의로 한정되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환경교육은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의 주요 주제가 교과로서의 환경과목에 국한되어 교과 외의 학교 환경교육의 다양한 실천양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II. 중등학교 환경교육의 실태

1.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 선택현황

가. 학교수 대비 환경과목 선택비율은 중학교 15.2%, 고등학교 33.2%(2003년 7월말 현재)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사회 환경교육과 같은 폭발적인 확산은 아니

2) 자연친화적 사회의 조성을 담게 될 환경교육의 원리와 원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원 보고서의 2장을 참고할 것.

지만,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도 외관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확실히 영역을 확보하며 신설교과의 한계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 학교 수 대비 중학교 15.2% (전체 2,850개교)와 33.2%(전체 2,031개교)의 수치를 평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현실에서의 환경과목의 교육실태에 대해 제한된 해석만이 가능할 뿐이다.

나. 선택과목 내 타 과목과 비교하여 도출한 학년별 선택율은 중학교 3.2%이며, 고등학교의 선택률도 유사한 비율이라 예상³⁾된다.

위의 통계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 중학교 환경과목의 선택률은 동일 위상의 선택교과와 비교하면 3.2%에 불과하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로 주당 2시간씩(2단위)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선택교과 중 2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총 6단위를 이수하는 것이다. <표 1>에서 선택 학년수가 실제 전체 학교수(2,850개교)를 상회하는 한문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적어도 2개 학년 이상에서 연속적으로 과목이 선택·교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과 (부)전공 교사의 임용문제와도 연동되는데, 교육과정이 변화한다고 현장에서 과목별 교사의 수까지 변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교사 정원이 유지되는 한에서 추가된 선택과목을 위한 새

로운 교사의 충원은 없게 된다. 결국, 동일위상의 선택과목은 모두 동등한 출발선상에서 있는 듯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과목선택은 교사 수급 및 학교 운영상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환경과목은 이미 상당한 한계를 안고 출발하게 된다.

중학교에서 교과 재량을 통한 환경과목의 선택현황은 전체 선택과목 편성현황에서의 환경교육 학년 선택률 3.2%라는 수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과목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며, 이를 인정할 때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

다. 고등학교 환경과목 선택이 3학년에 집중되어 선택학교 수의 증가가 곧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로 연결되리라는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환경과목 선택율의 확산이 곧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학교 별 환경과목 담당교사 수급 계획과 운영계획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또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고등학교 '생태와 환경'의 선택율의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232차 임시국회 교육위원회 회의 자료를 수합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⁴⁾

<표 1> 2003년 중학교 교과재량 중 선택과목 편성 현황 (2003년 4월 1일 현재)

과목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외국어							기타	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선택학년수	6,553	5,133	417	4	4	14	142	602	0	0	118	12,987
%	50.5	39.5	3.2	1.1	4.6			0.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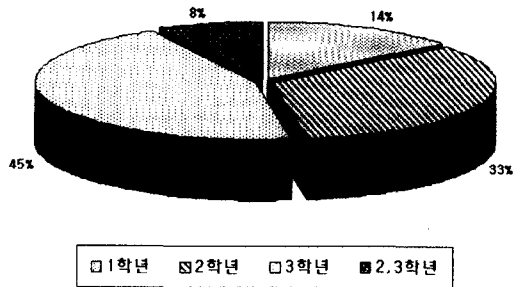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교육과정 편성현황, 2003.

- 3) 중학교의 환경과목 선택현황은 동일위상의 선택과목이 총 10개 과목으로 비교적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고등학교 환경과목의 선택현황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하여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10학년에서는 재량활동 영역 내 교과재량 중 선택과목의 일부로 선택이 가능하며, 11-12학년에서는 일반선택 교양과목군 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하므로 분리해서 현황이 조사되어야 한다. 둘째, 동일위상의 선택과목이 총 28개이며, 이들 과목 중 4단위의 선택이 가능하여 조사의 어려움을 더하게 된다. 셋째, 제 7차 교육과정이 2002년부터 시작함으로써 연구의 시점인 2003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어서 조사의 어려움을 더하였다.
- 4) 2002년 7월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전용학 의원은 교육부에 인문계 고등학교의 선택과목 현황에 관한 조사를 요구했고, 교육부는 2003년 1월까지 각급 학교에 선택과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합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성현황과 수치상에서 다소 차이⁵⁾가 있지만, 이 자료의 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으며,⁶⁾ '생태와 환경'의 학년별 선택현황은 3학년(45%)>2학년(33%)>1학년(14%)>계열별(8%)의 순으로 3학년 선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 입시를 중심으로 학교 운영의 전반 사항이 결정되고 여기에서 기인하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과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이미 주변부 교과일 수밖에 없으며, 환경과 전공 교사의 중등학교 임용도 아직 두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별도의 평가없이 수업이수 유무만을 공시하며, 수학능력 시험과도 무관한 환경과의 특성상 입시를 중심으로 학교운영의 전반이 결정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환경교과의 파행 운영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위의 그림은 '한국적 상황'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교과의 특성을 일선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서 입시와 무관하며 평가도 하지 않는 교과를 시간표상에 배정하였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 환경과목이 내실있게 운영될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림 1〉 일반계 고등학교 학년별 '생태와 환경' 선택현황

자료: 232차 국회 교육위원회 제출자료

2. 환경과목 선택률 부진의 원인

동일 위상 선택과목이라지만 '환경'과 '한문' 및 '컴퓨터'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선택되고 교육이 행해지고 있으며, '환경'과는 선택과목 간 경쟁에서 상당한 한계를 안고 출발하였다. 현재 환경과목은 중학교에서 교사수급의 문제로 인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와의 관련성 저하 때문에 선택률이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의 환경교육에 대한 의지와 준비된 교사수급의 정도에 따라 아래 <그림 2>와 같은 보다 세밀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다.

I 영역은 단위학교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환경교육에 대한 아무런 인식과 전망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목의 선택도 이루어질 수 없고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입시 중심의 학교 풍토에서 교육을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단위학교 주체들의 인식제고가 요구된다.

II 영역은 단위학교에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사를 임용하고자 하나 학생수 및 학급수의 한계로 인해 가능하지 않은 경우이다. 학급수가 적은 지방의 학교들에서는 주로 이러한

		환경교육에 대한 단위학교의 의지	
		약	
준비된 교사의 수급	의지	I 환경과목 선택 안함	II 선택의 의지는 있으나 교사수급이 불가능함
		III 준비된 교사가 있으나 임용률이 떨어짐	IV 환경교육을 선택하고 준비된 교사를 임용함

〈그림 2〉 환경과목 선택률 부진 원인 분석

5) 10학년 교과과정 선택과목 중 '생태와 환경'의 선택학교 수치가 경기도의 경우 교육부의 공식 자료에서는 38개교로 나타나지만, 보조자료로 선택한 의원 질의응답 결과에서는 3개교로 나타나는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6) 그림의 수치는 의원질의 응답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유에서 환경교육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III영역은 임용률의 자체 한계 때문에 준비된 예비교사가 환경교사로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는 II영역과도 긴밀하게 연계된 문제이다. 단위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선택하였지만 준비된 교사가 없어 환경교육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2>의 환경교사 수급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 자격 미이수 일반교사가 환경과목을 담당하는 행위가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다⁷⁾. 환경교육의 전문성과 교육행위의

충실성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은 궁극적으로 교직사회 전반의 기초를 갉아먹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IV영역은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조사과정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도 발견하였다. 즉, 단위학교의 다양한 여건에서 '환경'과목을 선택하였지만 전혀 엉뚱하게 운영되는 경우이다. 한 환경교육과 교수는 졸업생으로 환경교사로 신규임용된 제자로부터 입시와 무관한 과목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안 된다며 '수업 대신 자율학습을 하라'는

<표 2> 시도별 환경교사의 전공 및 부전공 현황 (2003년 7월 현재)

구분 시도별	환경과목 선택학교수	환경담당 교사수	자격미이수 교사수	자격이수 교사수	환경과목 자격조건 이수 교사수				
					총계	부전공 교사수			전공 교사수
						소계	활용교사수	미활용교사수	
서울	39	80	68	12	108	106	10	96	2
부산	168	218	150	68	186	184	66	118	2
대구	51	66	18	48	135	123	36	87	12
인천	29	60	26	34	99	96	31	65	3
광주	21	29	15	14	42	37	9	28	5
대전	36	64	21	43	262	262	43	219	-
울산	15	38	25	13	51	51	13	38	-
경기	365	128	-7	137	137	121	121	-	16
강원	23	34	3	31	44	44	31	13	-
충북	104	153	134	19	64	62	17	45	2
충남	51	99	74	25	65	58	18	40	7
전북	49	77	49	28	93	93	28	65	-
전남	53	75	49	26	95	95	26	69	-
경북	42	69	49	20	73	72	19	53	1
경남	45	71	49	22	64	57	15	42	7
제주	14	23	8	17	59	59	17	42	-
계	1,105	1,284	727	557	1,577	1,520	500	1,020	57

* 환경부 발표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7) 많은 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선택하고도 전담 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시수가 적은 교사 혹은 노령의 교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환경과목의 시수를 쪼개어 담당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학교장의 권고를 들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3. 환경담당 교사 수급실태

2003년 10월 환경부 발표 자료(표 2)를 보면, 현재까지 환경을 전공 혹은 부전공한 교사수는 총 1,577명으로 이중 전공교사는 57명, 부전공교사는 1,520명이다. 그러나 전국 1,105개 환경과목 선택학교에서의 환경과목 담당교사 중 환경을 전공·부전공한 교사 수는 43.3%(557/1577)에 불과하고 나머지 727명은 비전공자이다. 즉, 현재 학교에서 지도되고 있는 환경과목의 절반 이상이 자격조건을 이수하지 않은 일반교사가 이른바 '상치교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⁸⁾.

단순 통계수치만 살펴볼 때, 환경과 전공 및 부전공 교사의 수는 전체 환경과목 선택학교수를 훨씬 상회하고(1,577 > 1,105), 선택학교당 1명 이상의 자격이수 교사가 환경과를 가르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개별 학교에서 과목별 교사 수급은 전체 학교 선택과목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급 단위 선택과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또 교사들이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대학전공 및 부전공 연수를 통해 자격을 획득한 교사들이 정작 현장에서 환경과목을 가르치지 못하고, 자격조건과는 관계없는 타 교과 담당교사들이 환경과를 교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위의 자료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일단 자

격조건 이수 여부를 넘어 현재 환경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수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학교당 1명 이상의 환경담당 교사가 있는 셈이다. 물론 그 중 환경과 전공 및 부전공 교사의 비율은 절반 미만이고 나머지 교사는 자격조건과 관계 없는 일반과목 교사들이다.

2000년은 4개 국립대학의 환경교육과에서 환경과 전공교사가 처음으로 배출되기 시작한 해이다. 1996년 설립된 환경교육과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과 교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자격을 획득한 예비 환경교사의 임용은 첫 해에 고작 5명에 머물렀다. 교사양성 정책과 교사임용 정책의 조율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비단 2000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까지도 환경교육 전공자의 국공립학교 임용 현황(표 3)은 56명으로서 전체 졸업생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최돈형 외(2001)에서도 이러한 사정에 대해 국가적으로는 인력의 낭비이며, 학교 환경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 지적한 바 있다. 물론 1994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환경 부전공 교사⁹⁾를 더할 경우 환경과 자격 이수 교사의 수는 43.3%(2000년 현재)이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을 넘는 자격 미이수 교사가 그것도 환경과목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전공과목과 환경과목을 병행해서 가르쳐야 하는 상치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자격

<표 3> 국공립 학교 환경교사 임용현황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충남	경남	충남	경기	대구	충남	경기	대구	충북	경기	충북		
모집인원	3	2	3	5	3	1	10	4	2	20	3	56	

8)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환경 선택현황은 39개 학교이며 담당교사는 80명으로 학교당 2명 꼴이다. 그러나 실제 면접을 실시한 A고등학교의 경우 총 5명의 교사가 한 학년 15개 반을 나누어 가르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중 4명의 교사가 자신의 전공과목과 환경을 병행해서 가르치고 있었으며, 교과협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치교사에 의한 환경과 교수행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리라는 것을 예상케 한다.

9) 환경부전공 자격 연수의 성격은 부분적으로 환경교육에 열성을 가진 교사들의 부전공 자격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기 보다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담당 시수가 축소되는 교과목, 입학지원자가 급감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목에 대한 과잉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의 이수 유무는 교사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소양을 갖추지 못한 교사가 환경을 가르칠 경우 과학적으로 부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거나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적절히 가르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사회적 요구에 의해 독립 설치된 환경과목의 교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분명 그 사회적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모든 상치과목 교수행위는 학교교육에 대한 현 사회의 불신을 더욱 확대시킬 뿐이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교육의 문제를 단순히 '학생수 혹은 학급수 대비 교사 몇 명'하는 경제적인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경교육의 상치교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환경과목의 확산과 내실화 문제는 전체 교육과정과 전체 학교운영 계획의 틀이란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진단할 필요가 제기된다.

III. 환경교육 확산 방안

1. 확산을 위한 제반여건의 유목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교육내용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행위들로 구성된다. 물론 교사와 학생을 포함하여 학부모, 교육행정가, 교육학자, 교육단체 등이 학교교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행하는 주체들이지만, 특히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이론과 자료를 선택하고 변형하며 최종적으로 학생에게 전이하는 것이 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 환경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교사이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교사의 업무범주(학교의 운영범주)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이 가능한 혹은 확산을 위한 주요 행위거점을 범주화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더불어 교사 개개인의 환경교육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교육을 현직과 직전 교육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거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제반여건을 유목화한 것이 다음의 <그림 3>이다.

그러나 이상의 범주로 학교 환경교육이 가능한 영역들을 확인하고 그 연계관계에 따라 확산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놓쳐서는 안되는 점이 있다. 바로 환경교육의 좌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환경교육을 통한 궁극적인 도달점은 환경과목의 선택율이나 개별 교과 안에서 환경 교육 내용 요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환경교육은 학교 교육 전체가 생태친화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좌표이자 모든 방안 마련의 기초지향이 되어야 한다. 생태친화적인 교육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교육이 환경교육과 연계되는 것¹⁰⁾을 의미한다.

2. 중등학교 환경교육 확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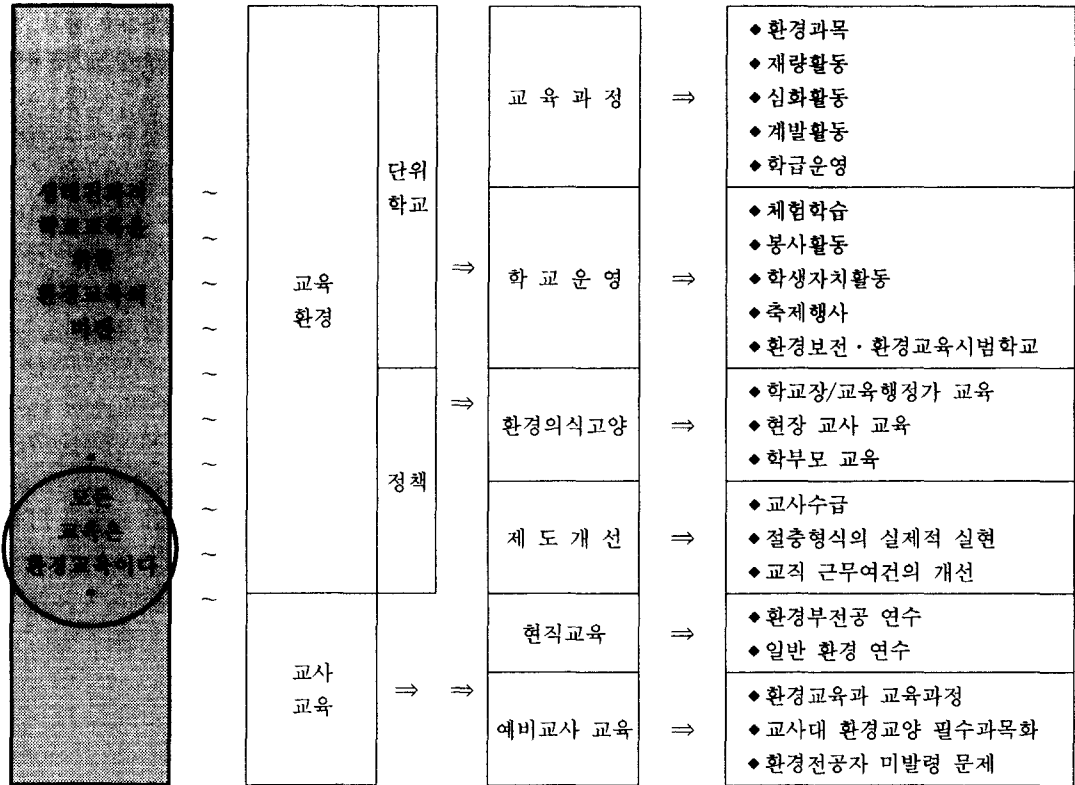
가. 교과영역에서의 확산

1) 환경과목 교육내용의 학년별 계열화

환경과목의 단기적 확산 그리고 궁극적인 내적 발전을 위해서 교육내용의 계열화를 통한 복수년 교육과정의 개발을 첫 번째 확산방안으로 제시한다. 일단 환경과목이 2개 학년 이상에서 연속적으로 교육되면 학습자의 환경인식 제고와 환경교사 수급 확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양적확산에 머물지 않는다. 교육내용의 계열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환경교육 교과 공동체(subject community) 내에서 환경교육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내용요소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학년별 계열화란 학년이 상승할수록 환경교육 내용을 적절히 배분하여 전학년에서 연속적이며 계획성 있는 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토대를

10) 분류표의 가장 왼쪽에 위치한 "모든 교육은 환경교육이다"는 Orr(1992: 90)가 징복자가 아닌 토지공동체(land community)의 일원으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6가지 기본명제 중 첫 번째 연명이다.



〈그림 3〉 학교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제반 여건 유목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현 교육과정의 상당한 수정을 가하는 작업이므로, 환경교육 교과 공동체는 지금부터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방안을 새로운 교육과정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2) 재량활동의 활성화

정규 교육과정 영역에서 환경교육 확산을 하는 방안으로 재량활동 시간의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현장에는 생명위기 시대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시각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이 있어왔다. 일선학교의 재량활동 시간을 이렇게 자발성과 헌신성을 갖춘 교사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교과 외 좁은 틀에서 벗어나 통합적이며 간학문적인 환경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a) 환경교육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b) 환경교사 모임에 대한 지원 확대 (c) 환경교육 자료 공모전 (d) 환경교육 전문가 및 교사들의 연대를 위한 대회 개최 등의 세부적 방안으로 시도되어 불만 하다.

나. 교과외 영역에서의 확산

1) 환경반의 활성화

공식적인 환경교과의 성립 이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환경반을 운영해 온 교사들의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교사들과 환경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될 교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세부적인 방안은 위의 재량활동 활성화 방안과 동일하지만 특별활동의 속성을 살려 지역 사회 환경단체와 단위 학교 내 학교별 환경반의 연합모임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환경

교육을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2) 수련활동을 환경체험 교육 활동으로 전환

각급 학교에서는 계발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수련활동을 실시한다. 별도의 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최근에는 환경교육을 일부 포함시키고 있으나 개별체험, 농사 체험 등의 전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 없이 학년단위의 대규모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교육이라 부르기 미흡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a) 생태학습 체험장의 확대 및 교육 표준모델의 개발 (b) 파견교사¹¹⁾의 활용 (c) 생태교육 전문가 양성(예: 자격증화) 등이 세부적 방안으로 제시될만하다.

3) 환경보전 시범학교 및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활성화

현재의 환경보전시범학교 및 환경교육 시범학교는 제한된 예산과 연속적인 지원의 부재 그리고 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란 문제를 놓고 있다. '학교숲 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위들과 환경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동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교육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동지원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욱 파급력 있는 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현 교육과정의 대폭 수정을 통한 확산

환경교육 확산의 전제는 교과를 넘어서 교육이념으로서 환경교육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친환경적인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려면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교육은 많은 과목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교과목에 스며들어가야 할 교육적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환경교사·환

경교육 전문가·환경교육 연구자 간의 연대체의 구성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연대체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확산시키려는 공동의 모색과 노력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결과물들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라. 교사대상 환경교육을 통한 내실화

1) 환경전공자 임용확대

현재 정규 교육과정 상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규 환경교과 시간, 재량활동이나 심화활동, 계발활동 등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다양한 전공의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나, 첫 번째의 경우는 현재 환경과 (부)전공자가 아니라 대개 평균시수를 담당하지 않는 여유있는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담교사가 아니라 환경과와 자신의 전공과목을 병행하여 가르친다는 점이다.

다수의 과원교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점차 환경과 전공교사의 신규 채용이 확대되는 것은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어야 할 것이다.

2) 환경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선

현재 환경교육 전공교사를 양성하는 5개 대학의 환경교육과 교육과정은 지나치게 공학적이고 자연과학적으로 치우쳐 있어¹²⁾,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교육의 특성을 제대로 구현할 교사를 양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인문사회적 그리고 윤리적인 접근의 교육이 더해져 환경교육과에서 배출된 교사들이 지식·정서·윤리 차원에서 고루 자질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환경교육 자체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교육과'라는 개별학과의 교육과정 개선을 넘어서는 목표상의 제시와 이를 실현하기 위

11) 호주의 경우 동물원에 현장교사들이 파견되어 근처 학교에서 방문하면 이들이 교육을 실시한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생태공원, 기존의 동물원 등에 현장교사 혹은 신규채용 교사를 파견하여 학교에서 현장방문시 교육을 의뢰하는 제도를 제안하는 바이다.

12)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평가는 용역과제 최종보고서의 5장을 참고할 것.

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진은 그 대안으로 교사양성기관(교·사대)에서 환경교과를 '교양필수'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환경교육이 모든 교육의 전제(transdiscipline)가 될 수 있도록 교사대 안에 '환경교양학부'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모든 예비교사가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환경 소양을 갖춘 교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현직교사 재교육에서 환경교육의 강화

환경교사 확대방안과 맞물려 생각해야 할 것은 환경교사 1급 정교사 연수(이하 1정연수) 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과 1정연수는 우선적으로 환경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에 위임되어야 하며, 5개의 환경교육과는 통합적이며 간학문적인 1정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학과를 넘어서 공동의 교육과정 구성과 개발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어 더불어 모든 교과 의 일정연수에서도 환경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현직교사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문명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환경교육의 확산과 내실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자연친화적 문명 구축이라는 높은 이상을 지향하되, 한국의 독특한 교육 여건 속에서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환경교육의 내용이 모든 과목에 스며들어 각 과목에서 환경을 가르치도록 하는 분산형 교육을 지향하지만, 오늘의 현실 속에서 독립된 형태로 환경과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립형 환경교육의 확산방안을 강구하여, 구체적으로는 환경과목의 학년별 계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방안은 환경교육의 심화를 통한 확산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환경교사의 임용율을 높이는 결

과를 낳으리라 전망된다. 환경교육 계열화의 논의는 다가올 8차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환경교과의 위상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제이므로 집중적인 논의와 검토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려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환경교육 확산과 내실화라는 과제의 정점에는 현장교사의 자질과 역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현직교사 연수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참고 문헌>

- 교육부 (2003). **교육과정 편성 현황**.
- 교육부 (2003). **2003년도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 (2003). 2003년도(7월말 현재) 환경과목 선택현황 분석결과 보고(2003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 권영락, 김종옥, 민경석 (2002).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교육의 개요 및 국내·외 동향, **2002년도 하반기 정기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환경교육학회.
- 양은주 외 (1999).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 엄은희 (2002).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교육의 실제: 푸른꿈고등학교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종 (2002). 녹색교육, **참교육연구**, 2(1).
- 이재영 외 (2002). **환경교육 활동·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개발**, 환경부.
- 한면희 (1997). **환경윤리**, 철학과현실사.
- 한면희 (2000). 환경정의와 NGO 운동, **교보교육 문화논총**, 3,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한면희 외 (2002). **생태적 합리성 및 감수성 제고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환경교과서 평가에 관한 연구: 체험학습 강화를 통한 자연친화적 실천으로의 인도**, 환경부.
- 한면희 외 (2003). **학교 환경교육의 확산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 환경부.

최돈형, 남상준, 이재영, 손연아 (2001). 제2차
중·장기 환경교육 강화방안 연구, 환경부.
Orr, David (1992). *Ecological Literacy: Edu-*

*cation and the Transition to a Postmodern
World*, SUNY Press.